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 창전거리살림집들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부인과 함께 행복의 웃음소리가 차넘치는 창전거리살림집들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먼저 창전거리 종로동 1반 1현관 3층 1호에서 살고있는 평양기계대학 교원인 심동수의 가정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 집에서 살고있는 행복만도 가슴씩 찬데 원수님께서 몸소 찾아주시니 무슨 말로 인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이는 심동수와 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방으로 들어서시였다.

언제 입사를 하였는가, 생활하는데 불편한것은 없는가, 물은 잘 나오는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세면장에 들리시어 몸소 수도꼭지도 틀어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창전 거리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은 아버지장군님께서 터전으로부터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신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계시였으면 신참으로 찾아오시였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매 방들을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방안바닥에 허물없이 앉아서 집식구들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방석을 올리는 집식구들에게 일없다고, 년세가 많은 할머니에게 깔아주라고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시며 앓지 말고 건강하여 로동당시대에 장수하라고 따듯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 집을 찾아가 갈 때에는 성냥을 가지고 가는것이 우리의 풍습이지만 성냥만 들고 올수 없어 가정용품들도 마련해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세계명작동화집》들도 가지고 왔는데 그것들은 잘 보관하였다가 앞으로 손주들이 태어나면 주라고 이르시였고 화면이 큰 텔레비전은 가까이 앉아 보면 시력에 좋지 않다고 세심히 일러도 주시였으며 가정그릇류들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환하게 웃으시였다.

집안에 딸들만 있는가고 물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들인 심일철이 인민군대에 나가있다는 이야기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부인께서는 박승일의 부부에게도 축배를 부어주시고 몸소 마련해가지고 오신 사랑의 선물을 남기시였다.

부인께서는 몸소 만들어가지고 오신 음식들을 내놓으시며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하시면서 그 조리방법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아이들에게 《세계명작동화집》들을 안겨주시며 앞으로 공부 잘해야 한다고, 둘째는 자신께서 가르쳐준대로 그림을 잘 완성하라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로동자들인 박승일, 장순녀의 가족이 새 집에서 행복하게 잘살기를 바라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2층 1호에 살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인 로력영웅 문강순의 신혼부부가 정도 찾으시였다.

매 방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강순이 2009년 7월 30일 공장에 찾아오신 아버지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과 남편인 이 공장 3대혁명소조원 김혁이 군사복무의 나날 부대에 찾아오신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지난 5월에 결혼식을 하고 2개월만에 새 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신혼생활이 재미있는가, 앞으로 자식은 몇명이나 낳으려고 하는가고 웃으시며 물어주시였다.

아들도 낳고 방직공영웅인 어머니를 닮은 딸도 낳겠다는 세대주의 이야기에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새 집이 정말 좋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씀올리는 로동자부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들 좋아하니 창전거리살림집들에 대해 마음을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신혼부부에게 축배를 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으며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정용품들을 방문기념으로 주시였다.

떠나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눈물을 길잡지 못하는 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행복하게 잘살라고, 창전거리를 지나게 되면 언제든지 들려 태어난 아이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부인 한은순이 중학교 교원을 하고 딸들인 심선영, 심혜영도 모두 교원들이라는것을 아시고 교육자집안이라고 하시며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자기들에게 이런 궁전같은 집이 차례질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사랑의 선물까지 가슴 가득 안겨주시니 정말 고맙다고 말씀올리는 집식구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제일 존경을 받고 우대를 받아야 하는 교육자가정은 응당 새 집에서 살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앞으로도 맡고있는 사업에서 성과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몸소 사랑의 축배도 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집을 나서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건강하여 오래오래 앉아있으라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3층 2호에서 살고있는 중구역도시미화사업소 로동자 박승일의 가정을 찾으시였다.

걱정에 겨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올리는 식구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직장은

어디에 다니는가를 물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두가 로동자들과라고 하시며 집안으로 들어서시였다.

생활의 구석구석을 친어버이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면서 최대의 생활상편의가 보장된 현대적인 살림집에 보급자리를 편 그들과도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박승일의 둘째 아들인 박훈을 무릎에 앉히고 볼도 만져주시며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몇살인가, 집안에 아들이 한명뿐인가고 물으시였다.

중학교 3학년생인 만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못내 서운해하시였다.

아이들이 자는 방과 공부하는 방에도 들리시어 둘째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림을 완성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다정히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나라의 로동계급의 세상이고 평백성이 온갖 복락을 누리는 인민의 나라라는것을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싶다고 걱정을 터치는 집주인들의 이야기를 웃

음속에 들어주시였다.

종전에는 한칸짜리 살림집에서 살았는데 5칸짜리 살림집에서 살게 되니 처음에는 이제 정말 우리 집이 웬지 믿어지지 않았다고, 고급가구들까지 일식으로 그쁘니 갖추어져있어 살림살이하기에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집주인들이 좋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당과 국가의 모든 시책이 인민을 위하여 실시되는것이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이 현실을 아버지장군님께서 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집으로 돌아온 딸 아들 박원이가 올리는 인사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애가 온것이 못내 기쁘시어 어디에 갔다가 늦어 왔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축구소조에 갔었다는 씩씩한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앞으로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그애의 결의를 축복해주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에 새로 꾸러진 전자도서관과 개업을 앞둔 해맞이 식당을 돌아보시고 능력확장된 대동강타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에 새로 꾸러진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자도서관의 여러 실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과 도서관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원수님께서 전자도서관을 설계도 잘 되고 시공의 질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었을뿐아니라 모든 설비들이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갖추어졌다고 하시면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방대한 량의 자료기지와 최첨단정보기술체계에 의거하여 학습과 최신군사과학연구사업도 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훌륭히 구비되어있는 전자도서관은 우리의 지적잠재력의 위력을 과시하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 전자도서관이 정말 회한하다고, 만족하다고 거듭 기쁨을 표시하시면서 도서관의 모든 건축물마다에는 군인건설자들의 뜨거운 지성이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 전자도서, 일반도서, 신문, 잡지를 비롯한 도서들을 비치해놓은 것을 보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다매체능력은 얼마나 되며 보관, 보안체계는 어떻게 세웠는가도 물어주시였으며 열람탁을 보시면서는 여러가지 용도로 리용할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의 여러 관과 야외전시장을

돌아보시였다.

무장장비관은 볼수록 훌륭하고 멋있다고 하시면서 지난해 12월 24일 완공된 무장장비관에 아버지장군님을 모시려고 하였는데 그 소원을 풀지 못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력강화를 나라와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를 지키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현대적인 무기, 전투기술기재로 장비시키기 위하여 국방공업발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고를 회고하시며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보아주시였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선군혁명영예를 만대에 빛내이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을 잘 보존관리하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우리 혁명의 총대령사를 똑똑히 알고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로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꾸러진 전당대에 오르시며 무장장비관을 부감하시면서 관리운영사업에서 나서는 강력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인과 함께 개업을 앞둔 해맞이식당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식당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과 상품진렬상태, 봉사계획, 로리의 가지수와 질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먼저 과일과 남새, 우유 및 고기제품, 주류를 판매하는 슈퍼마켓을 돌아보시였다.

슈퍼마켓이 독특하면서도 정교하게 꾸러졌을뿐만아니라 진렬도 특색있게 하

였다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표본이 될수 있게 잘 꾸렸다고 못내 만족하시였다.

간이매대에 들리시어는 강냉이튀기의 냄새가 구수하다고 하시면서 몸소 그 맛도 보아주시였다.

대중식사실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5월 식당을 돌아보면서 과업준대로 편안하면서도 안정감이 나게 천정조명과 벽장식, 비품배치를 잘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철반버거비빔밥을 보아주시면서는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선도가 좋은 물고기들과 여러가지 부위별 육고기제품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육류 및 수산물상점도 깊은 주의속에 돌아보시였다.

특색있게 시공한 회전식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로리들을 봉사하는 개별식사실들도 하나하나 돌아보시였다.

맛 좋고 품질 좋은 여러가지 빵들을 판매하는 매대에 이르시어는 위생성과 편의성을 완벽하게 보장할수 있도록 진렬장을 창조적으로 독특하게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였다.

커피점에 들리시어는 의자에도 몸소 앉아보시고 커피점의 특성에 맞게 안온하게 잘 꾸렸다고 말씀하시였다.

해맞이식당을 돌아보니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100점, 만점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창조물을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과 당의 의도에 맞게 손색이 없이 식당을 잘 꾸린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인

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안겨 주려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해맞이식당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능력확장된 대동강타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모든 공정들이 현대화되었으며 생산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대동강타일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설비들의 가동상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먼저 수십만㎡의 생산능력을 가진 미정석직장, 인조대리석타일직장 등이 자리잡고있는 생산건물에 들리시였다.

고급견제인 미정석을 생산하는 공정을 돌아보시면서 규소성분이 많은 모래나 돌이 첨가제에 따라 투명유리로도 될수 있고 색깔과 모양이 고운 유리돌인 미정석으로도 될수 있다는 일군들의 설명을 주의깊게 들어주시였다.

천연대리석과 똑같은 색깔과 모양을 가진 대형인조대리석타일을 생산하는 공정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였다.

타일위에 유리물을 입히는 방법으로 생산해낸 대형유리복합타일들과 견제품들에 여러가지 모양과 장식을 하는 첨단설비들의 가동정형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강타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아버지장군의 유훈과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창건거리를 비롯한 중요대강건설장들에 각종타일과 기와를 생산보장하는 긴장한 속에서도 2단계 능력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건재공업의 주체화, 현대

화, 과학화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업의 생산정형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컴퓨터로 생산지휘를 하고있는 종합지령실에 들리시어 자동화, 흐름식화된 생산공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 외벽타일, 내벽타일, 바닥타일, 대리석타일을 생산하는 직장들도 돌아보시였다.

조선기와의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기와를 흐름식으로 생산하고있는 기와직장에도 들리시어 설비들의 가동상태와 노동자들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구내에 있는 타일전시장을 돌아보시였다.

여러가지 장식타일을 보아주시면서 시대가 발전하는데 따라 사람들의 미적요구가 높아지고 건설방법도 변한다고, 그전에는 벽에 도배지를 바르는것이 기본이었는데 오늘은 장식타일로도 처리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 공장을 돌아보니 이곳 일군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일관을 통이 크게 밀고나가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애국심이라고, 대동강타일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자신의 마음을 후덥게 해주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동강타일공장은 굴지의 종합적인 견재생산기지라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타일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가지수와 질을 높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해당 부분에서도 대동강타일공장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 조선인민군군악단과 조선인민내무군녀성취주악단의 연주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연주회를 지도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인과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라 장대를 진감하였다.

연주회에서는 취주악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장군님 승리의 기치》, 《조선인민군가》,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 《조국의 바다지켜 영생하리라》, 《진군 또 진군》, 《해안포병의 노래》,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우리의 행군길》,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외국곡들인 《물결우에서》, 《갈춤》을 비롯한 곡목들이 연주되였다.

연주회가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악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혁명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심과 락관,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별적의 투지를 안겨준다고 하시면서 군악단앞에 나서는 임무와 그 관철을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혁명군악을 힘차게, 장엄하면서도 세련되게 울리자면 인민군군악단의 창작가, 연주가대렬을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창작가, 연주가들이 자기들앞에 나선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창조연주활동을 전투적으로 벌일으

로써 조선인민군군악단을 세계적인 군악단으로 더욱 발전시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최후승리를 향한 보람찬 진군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내무군녀성취주악단의 연주회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인과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는 백두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안고 울리는 《우리를 보라》의 힘찬 주악에 맞추어 원수님을 새기며 녀성취주악단의 입장례식이 진행되였다.

취주악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로 시작된 연주회에서는 트럼벳독주 《한마음 따르렵니다》, 취주악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평도자》, 금관4중주 《장군님 백마라고 달리신다》, 트롬본독주 《내가 지켜선 조국》, 전기가요편곡 《조국보위의 노래》, 《전사와 처녀》, 《전차병과 처녀》, 《진군 또 진군》, 《샘물터에서》, 《어머니의 노래》, 《아무도 몰라》, 《뽕따러 가세》, 취주악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소련성취주악 《감사의 노래》, 취주악과 풍물 《젊음은 금행렬차》, 《나가자 조선아》를 비롯한 곡목들이 연주되였다.

연주회는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목숨바쳐 결사옹위해갈 천만군민의 불타는 맹세를 담아 힘차게 울리는 취주악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주악으로 끝났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연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연주회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녀성취주악단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 선군조선의 기상과 단숨에의 공격정신이 나래치는 훌륭한 연주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녀성취주악단의 창작가, 연주가들이 혁명군악소리를 더 높이고, 더 힘차게 울림으로써 천만군민을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 불리일으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 세계평화연합 총재 문선명선생의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시였다

### 문선명선생의 유가족들에게

세계평화연합 총재 문선명선생이 병환으로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한학자녀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문선명선생은 서거하였지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울인 선생의 노력과 공적은 길이 전해지게 될것입니다.

김 정 은

주제 101 (2012)년 9월 5일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 고 문선명선생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세계평화연합 총재 문선명 화환을 보내시였다. 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7일 고인의 령전에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664호

주제 101(2012)년 9월 6일

### 문선명선생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조국통일로 선을 높이 받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적극 기여한 세계평화연합 총재 문선명선생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농수버들 우거진 보통강변에 한쪽의 그림자나 아름다운 보통강수산물상점이 새로 일떠서 붐사를 시작하였다.

### 새로 문을 연 보통강수산물상점

보통강수산물상점이 문을 연지는 얼마되지 않지만 이곳으로 런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상점가까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론 소문을 듣고 멀리 다른 구역에서까지 몸을 놓고 이곳 상점을 찾는다는 그럴만 한 리유가 있다. 새 세기의 요구

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러진 보통강수산물상점에서는 명태, 청어, 도무메기를 비롯한 신선한 물고기들과 바다나물, 새우, 게, 젓갈 그리고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각종 수산물가공품들을 분사한다. 이곳 상점을 가리켜 《수산물전시상》, 《수산물백화점》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갖가지 수산물들을 심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원형 또는 세운형의 냉장매대들이 그쁘하게 갖추어져 있는 이곳 상점에서는 아무래도 선도 좋은 물고기들과 물고기 가공품들을 구매할 수 있어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고 있다. 금방 잡은 것처럼 신선한 청어를 사들고 나온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1동에서 산다는 박춘실

한 국가적인 수송체계가 세워지고 도처에 수산물전문상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갖가지 붐사를 시작한 보통강수산물상점도 그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얼마전에는 창건거리에 새로 일떠선 해맞이식당에 평양시민들에게 물고기를 보장해주는 수산물상점이 생겨났다.

동해안의 원산수산물업소에서는 잡은 물고기들을 정성적으로 보통강수산물상점으로 보내고 있다. 갖가지 수산물들을 들뜬 사내 사람들의 얼굴마다에서는 웃음이 떠날 줄 모른다. 만경대구역에서 왔다는 리영희(45살)녀 성은 방금 말린 전어를 샀다고, 저녁식사때 식구들에게 맛있는 전어리리를 해먹일 생각이라며 활하게 웃었다.

하진 집에까지 갖것도 없다. 이곳 상점의 2층과 3층은 수산물전문상점으로 되어 있어 누구나 원하는 수산물로리들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 한꺼번에 수많은 손님들이 식사할 수 있는 이곳에



가 요구하는 비율로 조화롭게 들어 있다. 금강약물음료는 단백질, 지방, 핵산대사 등을 강화해 주며 세포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인체내 조직들의 삼투압이 정상으로 유지되게 하여 조직액의 이동, 흡수, 배설이 잘 되게 하고 산-염기평형과 pH를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여 준다. 그리고 체액, 뼈, 근육, 이발의 형성에 참가하여 질을 좋게 하며 미생물에 오염된 물을 소독하는데도 쓰인다. 지난 기간 사람들이 이 음료를 리용해본 결과 그의 효능이 증명되었다. 이 음료를

제 무침과 같은 무침로리들, 해산물잡채, 생선오곡향채볶음, 내장찜, 보양매대, 쏘거리담알찜, 조개불고기, 낚지불고기, 뱀장어구이, 칠색송어은지구이 그리고 회국수, 해물볶음밥, 명태매운탕, 섭죽과 같은 수산물로리들을 분사하고 있는데 그 맛이 특색이 있어 손님들속에서 호평이 자자하다.

보통강수산물상점에서 물고기를 사가지고 웃속의 수산물전문식당에 들러 찜을 찔끔 찔끔 일별별한 명태매운탕을 기본종계 비우고났을 때의 상쾌함을 어디에도 비길 수 없다. 그런가하면 온 가족이 단란하게 둘러앉아 회국수를 맛나게 드는 모습도 호호함을 자아낸다.

이곳 식당의 김미화희배인(46살)은 국가의 혜택으로 높은 값으로 물고기와 수산물로리들을 분사받는 인민들의 모습을 볼 때 제일 기쁘다며 앞으로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갈 결의를 피력했다.

본사기자 홍범식

광물질은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며 사람들이 건강장수하게 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국가과학원 중앙실험분석소에서 광물질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금강약물음료를 연구개발하였다.

금강약물음료는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건강장에 좋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금강약물속의 유용광물질을 분리하여 먹는물에 첨가하고 일정한 처리공정을 거쳐 만든 광물질보충음료이다. 과학자들이 개발한 새로운 음료에는 미량원소들을 비롯하여 인체에 필요한 광물질들이 풍부하게 그리고 인체

는 광물질부족으로 발생하는 지방병(도질병) 등 여러 가지 물질대사질병들을 예방 및 치료하며 면역기능을 훨씬 높여 감기를 비롯한 류점성질병들에 쉽게 걸리지 않게 한다. 또한 소화기와 순환기계통질병, 피부부병들에 대한 예방 및 치료작용을 한다. 그런가하면 임신부나 첫머리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서 많이 요구되는 광물질을 보충해 준다.

사람들속에서 건강과 병치로에 좋은 《약수》로 불리우는 금강약물음료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과학원 중앙실험분석소에는 금강약물음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가 그쁘게 꾸러져 있다.

본사기자

최근 세계적으로 자전거가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하여 자전거리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량의 카로리를 소모하는 것은 자전거운동의 첫 번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시속 25km의 속도로 1시간을 달리면 720kcal가 소모되는데 이것은 체중이 65kg인 사람이 시속 10km로 1시간을 달렸을 때 소모되는 량과 같으며 시속 6.5km의 빠른 속도로 1시간을 걸었을 때 소모되는 량(325kcal)보다 훨씬 높은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특히 비만한 사람에게 효과적이라고 한다. 평평한 사람이 걷거나 달리기 할 때 무릎관절에 무리가 생기지만 자전거는 안정이 무무게를 받쳐주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이 충분한 운동으로 살을 까게 할 수 있다.

자전거운동의 세 번째 효과는 근육발달에 있다. 페달을 자주 굴리면 하체근육이 수축이완을 반복하면서 다리에 탄력이 생기게 되고 안정은 허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허리 근육에 힘이 실리게 된다고 한다.

연구과정에 자전거의 이러한 근육운동이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슐린에 대한 근육의 민감성이 향상되어 근육이 포도당을 잘 쓰도록 돕는 바는 것이다. 자전거운동을 하는 모든 운동은 피의 순환을 개선시키고 뇌속에서 일련의 화학변화를 일으키며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전달물질의 활동도 촉진시킨다. 이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전거운동을 꾸준히 지속해서 해야 한다고 한다.

본사기자

고향집 첫날밤을 영백은 어머니와 한자리에 누워 새웠다. 《열두살 그때까지도 이 에미 팔을 베고야 잠들던 내가 그때 그 험한 세상에서 이 에미없이 어떻게 살아왔니, 응?》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은 영백을 이리 오나라 해서 두손을 붙잡고 물어보아 가는 또 웃음을 베폴라 해서 그의 장단이며 가슴까지 일일이 살펴보았다. 그러다가는 다시 그의 얼굴을 두손으로 더듬어보며 하였없이 눈물을 흘렸다. 환관이 가까운 영백이건만 역시 어머니에게는 아들한 예시처럼 철없던 그 아들 그대로 일뿐이었다. 영백은 어머니앞에 집을 떠나던 일이며 그간 남조선

과 미국에서 살아온 과정을 말씀드렸다. 한겨울의 긴긴밤을 길가의 세멘트판에서 새울 때 수평에 얼음베개 하 열영계 긴 띠를 덤덤 뻗면서 《영백아, 추... 춥지,》하며 통통 부은 영백의 언발을 아버지가 가슴을 헤치고 자기의 체온으로 녹여주던 일이며 그리고 부산자갈치시장의 싸구려 음식점에 식기닦기로 고용되어 식기걸을 잘 닦지 못했다고 음식찌꺼기 등등 떠도는 세척물에 덜미를 쳐박혀 구정물을 삼킨던 일이며 더는 참을 수 없었어 어머니가 주인놈을 때려놓자 음식점에 고용된 강태군이 달려들어 결국 그를 부자는 온몸이 괴로워서 되풀이하여 달려들어 결국 성이 되며 걸레처럼 문밖으로 던져졌던 일을 이야기했다.

《영백아, 이 어리석은 에미를 어쩔지나, 이 저주받을 딸 왜 왔겠니, 으흐흐.》 그때 거리 한복판에서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머리로 길바닥을 짓조으며 황초처럼 울부짖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향향이 삼삼하 마 주오는듯 연승 저리고름으로 눈물을 찍으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다. 《나니 그럼 어떻게 해서든 제 고향으로 찾아올 생각을 해야지 그 원추놈의 미국망엔 왜 갔단 말야, 영.》 그때 영백은 조용히 우리는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한 생을 통틀어 안개속에서 잠자던 물리를 울리는 엄정난 진쪽의 종소리처럼 들려와

그만 큰술을 들이그었다.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의 잘못된 인생길의 근원을 한순간에 짚어내느 것이었다. 영백은 허허- 가슴을 툄치며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의 뜻이 가슴속 정곡을 찔러서만 아니었다. 팔십오령에도 것처럼 명백한 생활신념과 건장한 정신력을 지닌 어머니가 너무 고마와, 아니, 그런 건장한 정신력을 준 고향땅이 너무 고마와 장판바닥에 엎드려 소리없이 울었다.

2 어머니의 그 말씀이 울었다. 막다른 생활난, 정전이 되고 군사분계선이 막혀 고향으로 갈길 역시 가망없음을 깨닫자 차라리 먼 타국으로 가서 향수병이라도 덜고 살자는 절망의 선택에서 아버지는 끝내 미국이민을 결심했다. 그것이 결국은 그들 부자의 운명에 더 비참한 결말을 가져온 비극의 선택이 되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학교의, 역시 같은 조선이민들이 모여사는 작은 마을이 대양을 건너간 그들의 첫 정착

사람들인데다 세태평양의 푸른 물결만 봐도 가슴이 설레어 일년도 못 넘기고 아버지는 다시 영백의 손을 잡고 더 내륙으로 들어갔다. 네바다주 남부와 아리조나주 서부를 잇는 자그마한 도시, 미국의 3대사막이 만

년중 모레바람이 그칠새 없고 숨막히는 열풍과 메마른 태양의 찌는듯 한 열기에 숨쉬기조차 가쁜 막막한 고지 내륙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고향이란 그렇게 멀리 같고 해서 잊혀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멀어질수록 그 그리움이 품으로 증폭되는 인간감정의 막무마구 자기 삶의 분향, 고향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밀지 않은 곳에 도박의 도시로 유명한 라스베가스가 자리잡고있어 그것을 찾아가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처음엔 과일장사를 해서 아득바득 돈을 벌었다. 몇해 걸린 피나는 고생 끝에 그를 부자는 힘들게나마 자그마한 음식점 하나를 장만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향수병은 오히려 더 심해버렸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가에 아버지는 짝만 생기면 창문턱에 몸을 엮고 먼 태평양